살았다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합께반드는인천	배포일자		2021년 3월 2일(화) 총 6매		● 인천평역시	
담당 시민정책 부서 담당관실	담 당 자	• 시민참여지원 • 담당자		<b>☎</b> 440−241 <b>☎</b> 440−241		
사진	■ 없음	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청원#37〉 시민시장님께 답변드립니다.

인천시,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 해양명소 조성에 최선! - 다각적 검토 위해 「소래습지생태공원 광역공원화 T/F」구성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일,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물류센터 신설 반대'를 요청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영상답변을 통해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습지 보전은 물론 공원 일대가 수도권 대표의 해양 명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민청원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자가 남동구청에 소래습지 생태공원 인근 논현동 66-12번지 일원 물류창고 건축을 위해 교통 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청원이 이어졌고, 30일간 총 3,021명이 공감을 표했다.
  - 교통영향평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발교통량을 예측하고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로 시는 향후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될 경우 시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다각적이고 꼼꼼하게 검토·심의할 계획이다.

- 한편, 조 부시장은 소래습지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해 "인근의 시흥 갯벌생태공원과의 연계를 통해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공원 일대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추진 중인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용역에서 이를 검토하여 시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반영하고, 금년 말까지 소래습지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2040 인천 공원녹지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 또한, 시는 원도심재생조정관을 주축으로 시 및 남동구의 관계부서 등을 포함한 소래습지생태공원 광역공원화 T/F를 구성・운영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에 대해서도 지역주민, 환경단체, 관계기관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가겠다"고 밝혔다.
-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a href="http://cool.incheon.go.kr/">http://cool.incheon.go.kr/</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답변원고

## 온라인 시민청원 영상답변 원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청원 답변으론 처음 인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한 조택상입니다.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소통하고 또 소통하며 주시는 말씀들 새겨듣겠습니다.

그럼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물류센터 신설 반대' 청원에 공감해주신 3,021명의 시민 시장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논현동 66-1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9층 높이의 대규모 물류창고가 건축된다는 소식에 시민 여러분께서 주거 환경 악화와 습지 훼손 등을 깊이 우려하고 계심을 우리시는 잘 알고 있고,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남동구청 역시 시민 여러분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는 현재 준공업 지역으로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령상 제재가 불가합니다. 다만, 건축허가 전 반드시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지난 해 12월,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에 앞서 남동구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우리 시는 남동구가 보내온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요청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발교통량을 예측하고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로서, 외부 교통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향후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될 경우, 더욱 다각적이고 꼼꼼하게 검토·심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더욱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유일의 해양습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의 환경적 가치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우리에겐 이를 보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선7기 인천시는 이전부터 소래습지생태공원의 환경적 특성을 살리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인천시는 인근의 시흥갯벌생태공원과의 연계를 통해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습지보전은 물론 공원 일대가 수도권 대표의 해양 명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시흥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철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만큼,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 용역에서 검토하여
시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8월 말에 준공예정인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역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금년 말까지 소래습지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2040 인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재생조정관을 주축으로 시 및 남동구의 관계부서 등을 포함한 T/F를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에 대해서도 지역주민, 환경단체, 관계기관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도시의 중심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사업추진이 도시의 발전을 가져올진 몰라도 도시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까지 또한 가져오진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시민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염려하시는 부분 모두 놓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가겠습니다.

인천 발전을 위한 크나큰 관심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